

기후위기 시대 전환 담론과 추출주의의 딜레마: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의 사례*

서지현**

| 목 차 |

I. 서론	친: 탈석유 발전
II. 라틴아메리카의 전환과 정치생태학적 관점	V. 코레아 정권의 부엔 비비르 담론의 단계적 실천: 추출주의와 탈석유 발전의 사이
III.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의 역사·공간적 형성	VI. 결론
IV. 부엔 비비르 담론의 급진적 실천	

| 논문요약 |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환 논의는 그동안의 발전 방식(혹은 모델)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라틴아메리카의 에콰도르 사례에 주목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원주민 운동을 중심으로 천연자원 개발에 근거한 주류 발전 방식에 대한 전환 담론으로 ‘부엔 비비르(Buen Vivir)’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류 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하였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2007년 집권에 성공한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부엔 비비르의 개념에 근거하여 신헌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안 정책을 시행했다. 본 연구는 에콰도르의 부엔 비비르 담론과 그 실천을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민 사회가 탈석유 발전을 부엔 비비르 담론의 급진적 실천안으로 제안했던 반면, 코레아 정권은 현실 정치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단계적 실천 과정에서 탈석유 발전과 추출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노정했다. 에콰도르의 전환 담론과 실천 과정에서의 딜레마를 분석함으로써

* 이 논문은 2022년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포럼 생명자유공동체를 통해 수행된 연구임.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써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전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 주제어: 기후위기, 아마존, 부엔 비비르, 탈석유 발전, 추출주의

I.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미래의 위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 정부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형성한 유엔 산하 기관이다. IPCC는 1990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2018년 특별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C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되면 2030-205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1.5°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¹⁾ 이러한 전망과 함께, IPCC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할 것으로 권고하며 2°C를 마지노선으로 평가했다. IPCC의 권고와 같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도시기반시설, 산업 체계에서의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이준서 2020, 85).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UNFCCC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국가 간 협의서인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²⁾를 채택했다.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산림을

1) 2021년 8월 수정된 보고서는 2018년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한 시기보다 10여 년을 앞당겨 2040년이 되기도 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 교토 의정서는 2005년 발효되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1단계

한정적이지만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s)으로 인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산정에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한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주로 글로벌 남반구 국가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방안 중 하나가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프로젝트이다.

한편, 포스트 교토(Post-Kyoto)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07년 발리 COP13에서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노리유키 2010, 8). 이처럼 기후변화 논의에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 2007년 발간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고서는 “1990년대 산림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의 주요 원인을 열대지방에서의 산림 전용과 온대 및 일부 한대지방에서의 산림 재생(regrowth)”으로 보았다(노리유키 2010, 43). 이러한 맥락에서 COP13에서 채택된 발리 로드맵(Bali Action Plan)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Reduced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를 지구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노리유키 2010, 146). REDD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논의된 배경에는 이미 2005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숍에서 ‘산림전용에 따른 배출량의 중요성과 흡수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이후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1에서 REDD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 있다(노리유키 2010, 147-148).

이처럼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산림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산림은 탄소 흡수원이라는 기능적인 역할로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글로벌 남반구 지역에서의 산림은 단순히 그 기능적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 이외에도 산림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 권력,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생태·사회적 공간이다(서지현 2021b, 205).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림 공간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원주민, 농민 지역 주민들의 생계(livelihoods) 공간이자 문화적 정체성이 형

(2008-2012년)와 2단계(2013-2020년)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성되는 공간이다. 생태적 측면에서 산림 공간은 온실가스 흡수원의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생물이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의 공간이다. 동시에 산림은 목재, 농산물, 석유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산림은 사회·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와 관련된 권력 관계가 경합하는 공간인 것이다(서지현 2021a; 2021b).

이러한 정치생태학적 관점³⁾에서 본 연구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그중에서도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⁴⁾을 둘러싼 대안 발전 담론인 ‘부엔 비비르(Buen Vivir)’⁵⁾의 실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글로벌 남반구의 산림을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시장적, 기술적 방식)으로 다루어온 방식을 넘어, 글로벌 남반구 내부의 복잡한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딜레마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남반구에 위치한 산림은 그 생태·문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후, 담론적 차원에서 『보존 vs.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글로벌 남반구 국가에 대한 개발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

-
- 3) 정치생태학은 생태(환경)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차원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적 입장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지현(2019)을 참조할 수 있다.
- 4) 아마존 열대우림(The Amazon rainforest) 지역은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의 상륙 활엽수 열대우림으로 세계 최대의 아마존 분지 전체 면적 690km² 중 530만km²를 차지한다(존 헤밍 2013, 634, 636).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계이며, 총 길이 7,483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존 헤밍 2013, 633-634). 남아메리카의 총 9개국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중 브라질이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동부 지역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다.
- 5)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인간 중심의 자연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발생한 발전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회복”을 통해 균형있는 삶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엔 비비르(혹은 비비르 비엔)는 1990년대부터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원주민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들 운동에서 제시하는 주류 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서지현 2021c, 209). 국내에서 부엔 비비르에 관한 연구는 그 개념의 철학적 근거 및 개념 형성 논의(조영현·김달관 2012; 조영현 2018; 서지현 2021a), 에콰도르 발전 담론 논의(김달관·조영현 2012; 김은중 2013; 조영현 2019) 등이 주를 이뤘다. 본 연구는 그 개념적 논쟁을 넘어, 에콰도르 발전의 전환 담론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부엔 비비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세기 중반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탈식민의 맥락에서 국제개발공동체⁶⁾가 선형적 진보관에 근거하여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은 이를 단계적으로 따르거나(근대화이론, 신자유주의론) 혹은 비판적으로 수용(세계-체제이론, 종속 이론)해 왔다. 본 연구는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이라는 생태·문화적 공간이 발전을 둘러싸고 복잡한 가치, 이해관계, 권력관계와 얽혀있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 모델의 전환 과정이 다양한 행위자 간의 지난한 정치적 협상 과정임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현실 정치적 딜레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기, 보전해야 할 커먼즈(common)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은 공간이자 에콰도르의 부엔 비비르 담론의 실천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북부 아마존 지역의 석유 개발과 탈석유 발전(post-oil development)을 둘러싼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 시기 글로벌 남반구 지역에서의 발전과 보전의 이분법을 너머의 복잡한 대안 실험 과정을 살펴본다.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석유 개발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자본, 국가, 국내외 환경 및 인권 활동가 등과 빈번한 교류 형성해왔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에콰도르에서 자연과 사회의 관계 및 발전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북부 아마존을 둘러싼 부엔 비비르의 실천은 『보전 vs.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집권한 진보 정권 하에서 부엔 비비르는 주로 석유, 기후변화, 체제전환, 원주민, 빈곤, 발전 등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발전에 대한 정의와 그 실천 등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전환 발전 담론과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류 발전 모델인 추출주의의 현실 정치적 강력한 영향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I장에서 라틴아메리카 전환 연구에서 정치생태학적 관점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의 생태·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역사·공간적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을 둘러싼 부엔 비비르 담론을 급진적

6) 국제개발공동체란 주로 북반구의 선진산업국,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실천안인 탈석유 발전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V장에서는 코리아 정권이 제안한 부엔 비비르 담론의 단계적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딜레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경험이 기후변화와 체제 전환에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II. 라틴아메리카의 전환과 정치생태학적 관점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콜롬비아 출신의 인류학자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는 2010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 라틴아메리카가 “발전에 대한 대안(alternative to development)” 혹은 “대안적 발전(alternative development)”을 위한 실험의 교차로에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코바르는 라틴아메리카가 이러한 실험의 장으로 자리잡는 것에 배경이 된 두 가지 위기에 관해 지적했다. 그 하나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위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정복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⁷⁾의 위기이다(Escobar 2010, 2).⁸⁾

7)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정복과 시작된 유럽 문명의 이식은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제노사이드의 발생, 식민주의의 팽배, 식민성의 기원”이었다(서라연 2014, 8). 따라서 “근대세계체제는 승자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야만적 속성을 은폐한 개념”이며, 이처럼 “근대성과 식민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처음부터 함께”했던 것이다(서라연 2014, 8-9). 페루 출신 사회학자 아니발 키하노(Anibal Quijano)는 이를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전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식민성과 근대성이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한 형태[“문명화 사명을 앞세운 제국주의, 근대화 논리를 앞세운 발전주의, 최근의 신자유주의” 등]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서라연 2014, 9). 이러한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을 정의하고, 인종 및 종족적 서열 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원주민 운동이 이러한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의 위기에 마주하여 저항한 것은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적 인식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저항에는 유럽의 근대성에 기반한 관계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주를 이루는데, 가령, 민족-국가(nation-state) 너머의 다민족(plurinational) 국가에 대한 요구, 자연-사회 이분법을 넘은 부엔 비비르에 대한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8) 에스코바르가 언급한 “발전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development)”은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의 위기에 대한 탈식민적/탈근대적 대안 모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대안적 발전(alternative development)”은 신자유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즉,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운동, 흑인 공동체 운동, 여성 운동, 환경 활동가, 인권 활동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20세기 후반 이후의 정치·사회적 변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들의 요구와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진보 정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발전에 대한 실험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의 위기에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4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진행된 발전에 대한 실험은 다층 공간에 위치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다양한 역사적 혹은 현실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대안적 발전 혹은 발전에 대한 대안 담론의 맥락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21세기 사회주의(21st Century Socialism), 다민족성(plurinationality),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민 혁명, 부엔 비비르, 영토적 자치, 탈식민 프로젝트(decolonial projects)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Escobar 2010, 2). 이러한 요구와 실천은 저발전으로부터의 발전이라는 선형적인 역사관에 기반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의 관계적 위치와 권력 관계에 따라 때로는 목표와 전략의 차이에 따른 분열과 분쟁을, 때로는 협상을 통한 일시적 균형이나 구조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Grossberg 2006, 4; Escobar 2010, 3 재인용).

결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40여 년 이상 전개되고 있는 전환의 실험은 다양한 행위자의 복잡한 가치, 이해관계, 권력관계 등의 경합을 살펴봐야 그 실천 과정에서의 조응, 분열, 정체, 협상, 진전 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 물, 산림 등과 같은 물리적 생태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발전을 둘러싼 경합을 살펴보는 정치생태학적 관점이 주목하는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의 이론적 하위분석틀을 적용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환 담론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 생태학적 관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발전을 바라보는 주류적 관점과 비교할 때 대안적 발전의 실천 과정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즉, 주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특정 정

에스코바르는 이를 “대안적 근대화(alternative modernisations)”라고 불렀다.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한 실천의 다양한 실험 내부의 인식적 간극은 부엔 비비르 담론의 실천 과정에도 살펴볼 수 있다.

권(혹은 그 정권이 채택한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의 여부와 맞물려 해석하곤 한다. 이러한 주류적 해석은 특정 정권 집권 기간 내의 정책에 관해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정권 이외의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환 실천의 흐름을 해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전환의 과정의 복잡성을 살펴볼 것이다.

Ⅲ.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의 역사·공간적 형성

본 장에서는 생태·문화적 공간으로서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이 어떻게 역사·공간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이 발전을 둘러싸고 왜 그토록 복잡한 이해관계, 권력관계 등의 경합에 노출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약 300여 년간 식민 지배하는 동안 안데스 지역과는 달리 아마존 지역은 식민화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⁹⁾ 16세기 중반 스페인 선교단과 탐험가들이 에콰도르 아마존을 탐사하고자 했지만, 겨우 오리엔테(Oriente)¹⁰⁾의 서쪽 끝에 도달했을 뿐이었다(Perreault 2001, 386). 19세기와 20세기 초 사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의 아마존 분지를 중심으로 고무 개발 붐이 있었지만, 에콰도르 오리엔테 지역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진 않았다(Perreault 2001, 386). 또한, 1920년대 초에서 1930년대 말 사이 석유 탐사가 진행되고, 남부 안데스와 오리엔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러시(gold rush)가 있었지만, 에콰도르 오리엔테 지역은 1960년대 말까지는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 에콰도르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해안지역(La Costa), 국토 중앙부에 우뚝 솟은 안데스지역(La Sierra), 동부 아마존 지역(La Amazonía),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섬을 포함한 섬 지역(La Región Insular)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10) 오리엔테(Oriente)는 에콰도르에서 아마존 지역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행정 구역상 에콰도르 동부의 수쿰비오스(Sucumbios), 오레야나(Orellana), 나포(Napo), 파스타사(Pastaza),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사모라 친치페(Zamora Chinchipe) 등 6개 지역을 포함한다.

고립된 채로 남아있었다(Perreault 2001, 386; Bremner & Lu 2006, 504-505). 이 때문에 오리엔테 지역에서는 아슈아르(Achuar), 코판(Cofán), 우아오라니(Huorani), 키추아(Kichwa), 세코야(Secoya), 시나(Sina), 슈아르(Shuar) 등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왔다(Bremner & Lu 2006, 505). 즉, 1960년대 말 이전까지 에콰도르 오리엔테 지역은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과 비인간 생물들의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원주민 부족과 오리엔테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외부 세계와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대부터 에콰도르 정부가 실시한 토지개혁과 아마존 식민화 정책이다. 20세기 들어 에콰도르 정부는 두 차례 토지 개혁법을 공포했다. 첫 번째는 1964년의 토지개혁 및 식민화법(Agrarian Reform and Colonization Act)¹¹⁾ 이고, 두 번째는 1973년 법이다. 특히 1973년의 토지 개혁법은 오리엔테 지역의 생태·사회적 환경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법은 오리엔테 지역으로 이주한 농민들이 벌목을 통해 농경과 목축을 위한 경작지를 마련한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50헥타르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Southgate et al. 2009, 2).¹²⁾ 두 차례의 토지개혁 및 식민화법을 통해 해안지역과 고산 지역에서 오리엔테 지역으로 많은 수의 농민들이 이주했는데, 특히 이들은 모로나 산티아고와 사모라 친치페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부’ 오리엔테 지역이 고산지역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Southgate et al. 2009, 3). 반면,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북부’ 오리엔테 지역은 당시만 해도 도로 등의 연결망이 거의 부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헐적인 인구 이동만 있었다(Southgate et al. 2009, 3).

한편, 북부 오리엔테 지역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이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7년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에서 대규모 유정이 발견된 이후 석유 탐사와 개발이 본격화된 것과

11) 이 법의 목적은 부유한 대지주와 가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대농장을 농민들 및 무토지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물론, 오리엔테 지역의 식민화를 통해 사실상 농민들의 토지 재분배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국토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Vitieri-Salazar & Toledo 2020, 2; Bremner & Lu 2006, 506).

12) 경작지에 대한 권리 인정과 더불어 에콰도르 정부는 국영 개발 은행을 통해 농민들과 목축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Southgate et al. 2009, 7).

연관이 있다. 1964년 텍사코/걸프(Texaco/Gulf)사 컨소시엄(Consortium)이 오리엔테 지역에서 석유 개발권을 승인받으면서 탐사를 시작했고, 뒤이어 많은 초국적 석유 기업들과 에콰도르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가 개발에 참여했다(Bozigar et al. 2016, 127). 이와 같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사이 진행된 아마존 식민화 정책과 본격적인 석유 개발로 인해 북부 오리엔테 지역은 대규모의 생태·사회적 변화를 겪었다(Perreault 2001, 382).

1970년대 오리엔테 북부 지역에서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고, 에콰도르 다른 지역과의 도로 연결망이 구축되면서 아마존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Perreault 2001, 386; Bremner & Lu 2006, 505; Vitieri-Salazar & Toledo 2020, 3). 특히 1972년 수도 키토(Quito)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오리엔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한층 가속화되었다(Southgate et al. 2009, 9). 1972년 콜롬비아 남동부 지역에 이미 건설되어 있던 송유관을 이용하는 안이 거부되고,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을 가로질러 라고 아그리오 시에서 태평양 연안의 에스메랄다 시까지 이르는 새로운 송유관이 완공되면서 아마존 지역에 대한 생태·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었다(Perreault 2001, 386; Southgate et al. 2009, 4).¹³⁾ 송유관 건설과 함께, 고속도로, 다리, 공항 등의 인프라 등도 속속들이 건설되면서 북부 오리엔테 지역으로의 이주가 급물살을 탔다(Southgate et al. 2009, 5).

북부 오리엔테 지역의 경우 주로 코판, 시오나-세코야, 우아오라니 족이 살아온 지역인데, 1972년에서 1992년 사이 약 35만 명이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원주민 부족들의 정착 패턴, 생계 전략, 시장과의 교류 방식 등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Bremner & Lu 2006, 506; Southgate et al. 2009, 1). 특히 오리엔테 지역과 같이 전통적으로 원주민 공동체가 살아온 지역에서 석유 개발과 같은 추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원주민 부족들의 삶의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리엔테 지역 원주민 부족들의 경우 주로 공동 토지 제도를 통해 비자본주의적인 물물 교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Bozigar et al. 2016, 126). 추출 활동이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는 점차 사유화되었으며, 시장 경제가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원주민들 및 지역 이

13) 1970년대 초 이후 에콰도르 북부 오리엔테 지역에서 본격화된 석유 개발은 지역의 원주민 부족들의 생계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를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다(서지현 2021a; 2021c).

주민들의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동원되기도 했다(Bozigar et al. 2016, 126-127).

이러한 생태·사회적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은 각기 다른 세계 전략을 펼치게 된다.¹⁴⁾ 일부 원주민 부족들의 경우, 특히 석유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석유 개발을 위한 원주민 토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석유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도로와 전기 등의 인프라는 물론 학교 등을 제공받았다(Bremner & Lu 2006, 508-9; Bozigar et al. 2016, 126). 모든 원주민 공동체에게 이러한 석유 기업의 보상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 기업의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은 때로는 공동체 내부 분열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석유 기업들의 보상이나 물질적 지원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 원주민 공동체도 존재했다(Bozigar et al. 2016, 126).

이처럼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은 1970년대 석유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 부족, 이곳으로 이동한 국내 이주민들, 석유 기업,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에콰도르에서는 전국적인 원주민 공동체의 조직화가 본격화되면서, 원주민 공동체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정체성의 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¹⁵⁾ 또 다른 한편, 아마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국내외 환경 활동가들과 NGOs가 아마존의 생태 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오리엔테 지역의 다양한 원주민들은 석유 기업, 정부, 원주민 조직, 국내외 환경 활동가 등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착의 패턴, 생계 방식, 문화적 정체성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Bremner & Lu 2006, 516).

14) 일부 원주민들은 석유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고,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숲의 부산물을 통해 혹은 관광 활동을 통해 시장 경제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수의 원주민들은 사냥, 어업, 소규모 영농 등을 통해 전통적인 생계 방식을 유지했다(Bozigar et al. 2016, 127).

15)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지현(2021a)을 참고할 수 있다.

IV. 부엔 비비르 담론의 급진적 실천: 탈석유 발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에콰도르에서 석유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개발은 북부 아마존 지역에 집중되었다. 에콰도르는 전통적으로 카카오, 바나나, 석유, 새우 양식업, 화훼 산업 등 천연자원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70년대 민중 친화적인 군사 정권 하에서 석유 개발은 국가 근대화 발전의 주된 물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저명한 환경 NGO인 악시온 에콜로히카(Acción Ecológica)의 수장이자 코레아(Correa) 정권(2007-2017년 집권)의 첫 광물에너지부 장관이며, 제헌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는 2009년 발표한 책인 『La maldición de la abundancia: Un riesgo para la democracia(풍요의 저주: 민주주의의 위협)』에서 석유와 같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의존한 발전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펼치며, 에콰도르 역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¹⁶⁾에 걸렸음을 주장했다.

아코스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에콰도르가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 지역 전체에서 석유 추출 활동을 중단(Oil Moratorium)하고 탈석유 발전(post-oil development)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Kingsbury et al. 2019, 537; Arsel & Angel 2012, 214). 이러한 탈석유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오일 와치(Oil Watch)가 아마존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와 추출에 반대하는 저항에 지지를 보내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석유 추출 활동 중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Arsel & Angel 2012, 214-215). 즉, 석유 추출 활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온 시민 사회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은 이 제안을 통해 에콰도르가 유지해온 추출 산업에 기반한 발전 모델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석유 모라토리엄은 석유와 같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환경 악화, 저발

16)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에너지, 광물, 식량 등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박선미·김희순 2015, 117).

전, 부패, 민주주의 제도의 허약성 등의 자원에 대한 종속과 같은 저발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에콰도르의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벗어날 방법으로 제안되었다(Pellegrini et al. 2014, 287). 이 때문에 석유 모라토리엄을 처음 제안한 오일 와치는 에콰도르 아마존 전체 지역에서 석유 추출 활동의 중단(moratorium)을 선언했으며, 200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보전, 기후 그리고 권리’라는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안했다(Pellegrini et al. 2014, 187).

알베르토 아코스타에 따르면 부엔 비비르는 공동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기회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Acosta 2012, 61-65).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원주민과 흑인 공동체, 환경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탈석유 발전’은 주류 발전론에서 이해하는 (경제사회적) ‘저발전(underdevelopment)’의 단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다른 철학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Escobar 2010, 23). 즉, 석유와 같은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인간 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해낸 위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적 발전(alternative development)’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자연(특히 석유와 같은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 위기 극복을 통한 문명 전환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석유 발전’을 주창하는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부엔 비비르란 경제, 자연, 사회,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문명적 전환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위기는 물론 식민성/근대성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탈석유 발전에 기반한 부엔 비비르 담론에 관한 시민 사회의 실천 제안과 달리 진보 정권으로 알려진 라파엘 코레아 정권 하에서 부엔 비비르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실천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주류 발전 모델인 추출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현실 정치적 딜레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V. 코레아 정권의 부엔 비비르 담론의 단계적 실천: 추출주의와 탈석유 발전의 사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에콰도르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 부상한 원주민 운동은 국내외적 주목을 받았다. 앞서 에스코바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운동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 정책에 따른 위기와 또 다른 한편으로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에 따른 위기를 포괄하는 사회적 주체로 20세기 후반 이후 막강한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상했다(서지현 2021a). 한편, 2006년 11월 경제학자 출신으로 알프레도 팔라시오(Afredo Palacio) 임시 정부(2005-2006년)에서 경제부 장관으로 입지를 다진 사민주의적 진보성향의 정치 신인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가 자신의 정치 운동인 알리안사 파이스(Alianza PAIS)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Clark 2017, 354). 코레아의 당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던 좌파 정권 부상의 행렬을 잇는 것이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가 당시 마주했던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세력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의미하는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에콰도르 사회에서 제기된 다민족성, 부엔 비비르와 같은 다양한 발전에 대한 대안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기대되었다.

코레아 역시 그의 정권은 대선 기간부터 주창했던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¹⁷⁾을 실천할 것임을 강조하며, 당선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헌 의회를 소집하고 신헌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2007년 4월 15일 국민 투표를 통해 신헌법 제정이 결정되었고, 제헌의회 투표에서 여당은 총 130석 중 73석을 차지함으로써 과반수를 확보했다(Escobar 2010, 20).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180일간 활동한 제헌의회는 2008년 9월 국민 투표로 신헌법을 제정했다. 신헌법을 가로지르는 핵심 개념은 부엔 비비르에 기반하고 있으며, 헌법 275조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써 부엔 비비르를

17) 시민혁명은 코레아가 대선기간부터 주창했던 에콰도르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개혁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실천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Goery 2021, 210). 2008년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은 부엔 비비르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권, 다민족 국가, 참여 민주주의, 법적 다원주의 등의 새로운 발전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Escobar 2010, 20). 이 때문에 헌법 제정 초기, 코레아 정부가 헌법을 기반으로 대선 기간 주창해왔던 시민혁명의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코레아는 국가 발전 계획을 통해 탈석유 발전(Post-Oil Development)을 표방했다. 이를 위해 코레아 정권은 석유화학 공장 건설 등을 통한 경제 구조의 전환, 재생에너지(특히 수력 발전) 투자를 통한 에너지 체제의 전환, 빈곤 감축 정책의 실현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었다(Fontaine et al. 2019, 57; Pellegrini et al. 2014, 287).

1. 야수니-ITT 이니셔티브(Yasuní-ITT Initiative): 탈석유 발전의 실천?

이 중 지난 수년간 에콰도르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야수니-ITT 이니셔티브(Yasuní-ITT Initiative: 이하 이니셔티브)’이다. 이니셔티브는 코레아 정권이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위해 제정한 헌법과 부엔 비비르 이상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안한 가장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Goery 2021, 211). 이니셔티브는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의 야수니 국립공원의 생태적 다양성과 그곳에 사는 자발적으로 고립된 원주민 공동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에 걸쳐 위치한 ITT 석유 광구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국제 사회가 보상기금을 형성,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콰도르의 기후변화대응 및 발전 모델의 전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출발했다.

1990년대 말 시민 사회 단체의 주도로 석유 추출 활동 중단이 제안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탈석유 발전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다. 이니셔티브가 정부 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에콰도르의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집권하게 된 라파엘 코레아 정권에 진보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특히 이니셔티브 형성 초기부터 에콰도르 발전 모델에 대한 대안 논의를 주도했던 알베르

토 아코스타가 코레아 정권의 주요 인사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Fierro 2016, 942; Arsel & Angel 2012, 215). 2007년 3월 코레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9월 UN 총회¹⁸⁾에서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Kingsbury et al. 2019, 537-538).

야수니(Yasuni) 국립공원¹⁹⁾은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의 파스타사(Pastaza)와 오레야나(Orellana)지역에 위치한 생태·문화적 보고 지역이다. 1979년 에콰도르 정부가 그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1989년에는 유네스코가 이 공원을 ‘세계의 생태보고(World Biosphere Reserve)’로 선언했다. 이 지역은 생태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우아오라니(Huaorani or Waorani), 타로메네(Taromene), 타가에리(Tagaeri) 등 다양한 원주민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야수니의 남부 지역은 1999년 무형 자산 지역(Intangible Zone)으로 선언되었는데, 이것은 자발적 고립을 하는 원주민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Arsel & Angel 2012, 213).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은 에콰도르 경제 발전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산업의 개발지역²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니셔티브는 야수니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 이시핑고-탐보코차-티푸티니(Ishpingo-Tambococha-Tiputini) 지역(ITT fields)²¹⁾에 매장된 석유(8억 4,600만 배럴로 추정, 에콰도르 석유 매장량의 20% 차지)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국제 사회에서 대안적 신용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의 생태적·문화

18) 2007년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 on Climate Change)에서 코레아는 Yasuni-ITT Initiative를 제안했다(Fontaine et al. 2019, 60).

19) 총 982,000 헥타르 면적으로 갈라파고스 섬에 이어 에콰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며,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20) 야수니 국립공원 지역의 경우, 총 6개의 석유 개발 블록(Block 14, 15, 16, 17, 31, ITT(Ishpingo Tambococha Tiputini) block)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구티에레스(2003-2005년 집권)정부 하에서 외국 기업들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 코레아 정부 하에서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에콰도르 국영석유기업의 야수니 지역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커졌다(Certoma & Grey1 2012, 202-203).

21) 1983년 이후 공식적으로 석유 탐사가 진행되었고, 1995년과 2003-2004년 사이에도 탐사가 진행되어 야수니 공원의 ITT 블록은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확인받았다(Arsel & Angel 2012, 213).

적·사회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²²⁾을 목표로 제안되었다(Goeury 2021, 211; Kingsbury et al. 2019, 530-531; Arsel & Angel 2012, 213). 에콰도르 정부는 ITT 석유 광구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국제 사회에 36억 달러의 기금(10년간, 추정 석유 가치의 절반 정도의 가치에 해당)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논의 끝에 2010년 8월 야수니-ITT 신용기금(Yasuni-ITT Trust Fund: 이하 YITF)이 마련되어 유엔 개발 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운영 주체로 결정되었다.

코레아 정권의 탈석유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니셔티브는 2007년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원안의 범주가 크게 축소되었다. 1990년대 말 시민단체들이 제안했을 당시 원안은 ‘아마존 지역 전체’에서의 석유 추출 활동의 중지였는데, 2007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고 국제 사회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면서 ‘ITT 광구’의 추출 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²³⁾ 이렇게 축소된 이니셔티브는 에콰도르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자원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생태·사회적 해결안으로 제시되었다. 생태적으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야수니-ITT 신용기금)을 통해 ITT 광구의 석유 추출을 중지하고, 기술 기반 포스트 석유 발전(Post-Oil Development) 프로그램(수력 발전, 석유화학공장 건설 등)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재원 확보(야수니-ITT 기금 및 탄화수소법 개정)를 통한 빈곤 감축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특히 아마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부엔 비비르)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는 부엔 비비르라는 전환 담론의 실천 범주를 시장에 기반한 기후 변화 대응 방식과 기술 및 행정적 방식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축소했다.

2013년 5월까지 YITF는 이니셔티브 제안 당시 목표했던 36억 달러[이 중 에콰도르 정부 재정으로 절반이 할당(Pellegrini, et al. 2014, 285)]에 크게 못 미치는 약 3억 3,7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같은 해 8월 15일 코레아 대통령은

22) 이 지역의 석유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4억 7백만 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석유 추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지된 벌목으로 8억 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ellegrini et al. 2014, 285; O'Connell 2015, 43).

23) 2007년 3월 에콰도르 국영석유기업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의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ITT 광구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Fierro 2016, 939).

YITF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저조한 참여를 비난하며 이니셔티브의 중지를 선언하고, 2013년 10월 에콰도르 의회는 ITT 광구가 포함된 43광구와 31광구의 개발을 승인하였다(Fontaine et al. 2019, 63; Vallejo et al. 2015, 181). 2008년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에 따르면 보호지역에서의 추출 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ITT 광구가 10년 전에 개발권을 승인받았을지라도 실제로 개발이 허용될 수 없었다. ITT 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조항 407조에 근거하여 국민 투표나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거쳐 추출 활동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했다(Fontaine et al. 2019, 63; Pellegrini, et al. 2014, 285). 2013년 당시 의회는 여당(Alianza PAIS)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구 개발을 위한 의회 승인에는 무리가 없었다(Fontaine et al. 2019, 63).

2. 야수니-ITT 이니셔티브의 실패: 추출주의의 딜레마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레아 정권이 부엔 비비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발전 사상에 대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대안 발전 담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안 발전 담론은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위기와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의 위기와 관련해서 전개되어 왔다.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민 운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가 부엔 비비르라는 전환 담론의 실천안으로 제안했던 탈석유 발전안이 식민성/근대성 프로젝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반면, 코레아 정권이 부엔 비비르 담론을 실천하고자 제안한 정책들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제도)를 재건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Arsel & Angel 2012, 207). 즉 20세기 후반 시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장에 맡겨지거나 무시되었던 쟁점들을 국가 정책으로 커버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보호, 이들을 위한 경제적 재분배, 자연 보호와 보존, 국가 경제 활성화 등이 정권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발전 담론으로 원주민의 수막 카우사이

개념에서 형성된 부엔 비비르와 접목점을 찾았던 것이다(Arsel & Angel 2012, 208). 실제, 코리아 정권은 신자유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역할의 변화를 통해 대안적 발전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Arsel & Angel 2012, 208). 이는 코리아 정권 하에서 ‘빈곤 감축’을 위한 사회 정책에 대한 재정 확대와 공공 투자 확대 등의 영역에서 그 성과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코리아 정권이 부엔 비비르라는 전환 담론의 실천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그 실천 방법, 속도, 목표 등의 지점에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과의 강력한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Arsel & Angel 2012, 208). 앞서 살펴본 야수니-ITT 이니셔티브의 경우 정권이 전환을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코리아 정권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것처럼 에콰도르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탈석유 발전을 추구해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목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장기 발전 계획과 신헌법을 가로지르는 부엔 비비르는 탈석유 발전을 지향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석유 발전 정책은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탈석유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실천 방식 역시 석유 개발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 마련과 사회경제적 재분배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ITT 블록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석유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었고, ITT 광구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코리아 정권이 부엔 비비르라는 전환 담론의 실천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석유 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를 통해 거시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동시에 다수의 민중들로부터 정치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권의 ‘추출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인 2009년 정부는 신광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에콰도르에서는 다소 적은 빈도로 이뤄지던 대규모 노천 광산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정권의 추출주의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 정권의 부엔 비비르 담론 실천의 속도, 방식, 목표는 시민 사회의 그것과 달랐으며, 이로 인해 단계적 전환이 아닌

급진적 전환을 요구하는 원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아 집권 시기 중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정부가 석유 부분의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3.5배 증가했다(Goeruy 2021, 213). 다만,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권과 달리 코리아 정권은 자원 추출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 투자 혹은 공공 투자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신추출주의²⁴⁾적 성격을 가진다. 2006년 GDP의 6.1%가 사회 부분에 투자된 반면, 코리아 집권 기간인 2011년 GDP의 14.7%가 사회 부분에 투자되기도 했다(Clark 2017, 356). 코리아는 이러한 사회적 투자 증가가 추출 산업이 진행되는 오리엔테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공동체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코리아 정권 하에서 늘어난 사회적 투자와 공공 투자로 인한 수혜집단은 도시 중산층인 것으로 드러났다(Goeruy 2021, 213). 이 때문에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Goeruy 2021, 213).

이러한 신추출주의는 신자유주의 정권들과는 다른 강화된 국가의 역할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추출주의와 단절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천연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주안점으로 둔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탈석유 발전을 통한 부엔 비비르 담론의 급진적 실천과는 거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너지 구성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성은 여전히 석유에의 의존도가 높다. 코리아가 집권한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에콰도르의 화석 연료 생산 비중은 8% 증가했고, 수력 발전의 경우 75.2% 증가했다(Fontaine et al. 2019, 64). 이는 코리아 집권 이후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특히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 연료의 비중은 92.17%, 수력 발전의 비중은 4.51%로 에콰도르는 여전히 화

24) 신추출주의(neo-extractivism)은 고전적 추출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2000년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권에서 나타난 자원 개발 형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주된 특징으로는 "(i) 자원개발에 있어 국가가 보다 직간접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ii) 사회 분배 정책을 통해 (발전을 위한 자원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Vilalba-Eguilyz & Etxano 2017, 4, 서지현 2018, 39-40 재인용).

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Fontaine et al. 2019, 64). 코리아 정권이 집권 10년간 포스트 석유 발전을 발전 목표로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구성에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7-2016년 사이 에콰도르 에너지 소비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7% 증가했으며, 산업 부분의 경우 3.55% 증가했다(Fontaine et al. 2019, 64).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포스트 석유 발전이라는 발전 모델의 전환이 석유산업과 같은 추출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증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Pellegrini, et al. 2014, 287).

코리아는 정권이 추진하는 부엔 비비르 담론의 실천에서 천연 자원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즉, 코리아 정권이 추진하는 신추출주의 관점에서 부엔 비비르는 빈곤을 가능한 빨리 극복하고 국가의 자율권을 확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 개발이 필수적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Goery 2021, 212). 이처럼 인간 친화적인 발전이라는 코리아 정권의 대안적 발전은 자원 개발을 통한 거시 경제의 성장과 자원 이용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반하고 있다(Escobar 2010, 22). 즉, 부엔 비비르의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지만 전환 담론으로서의 부엔 비비르 담론의 급진적 실천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와는 달리 단계적 실천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 중단기적 목표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신추출주의적 발전을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국제 기후변화 레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열대우림 지역 중 한 곳인 아마존, 특히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을 둘러싼 대안적 발전 논의와 그 실천 과정에서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실제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외면할 수 없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경고나 영향을 무시하거나 거부 혹은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제까지의 발전 패턴, 발전에 대한 인식 및 삶의 방식 등을 크게 바꿀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대응이 기후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사례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담화하는 것이 실제 실천하는 과정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발전을 정의하고, 인식하며, 실천하는 방식이 상이하며, 이를 결정하는 권력관계 또한 복잡하다.

에콰도르의 북부 아마존 지역은 식민시대 이후 꾸준히 외부의 세계와 다양한 형태로 접촉해왔고, 그에 따른 사회·생태적 변화를 겪어온 변동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지역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에콰도르 정부의 농지개혁과 식민화(Colonisation) 정책, 고무, 금광 개발, 석유 개발 등으로 이어진 아마존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아마존 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원주민 종족 공동체들만 아니라 안데스 고산지역이나 해안지역에서 이주해온 메스티소(mestizo) 원주민들이 함께 공존 및 분쟁하며, 다양한 종족 및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왔다(Noroña 2022, 49). 즉, 아마존은 역사·공간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다.

특히 에콰도르 북부 아마존 생태·문화적 환경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유정의 발견, 그에 따른 도로 및 송유관 등의 건설, 아마존 식민화 정책 등으로 자본, 국가, 국내의 환경 및 인권 활동가 등과 빈번한 교류 형성해왔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에콰도르에서 자연과 사회의 관계 및 발전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천연자원 개발에 의존적이었던 에콰도르의 주류적 발전 모델을 넘어 부엔 비비르(buen vivir)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발전 모델의 전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서지현 2021a; 2021c). 이 때문에 북부 아마존을 둘러싼 부엔 비비르 담론의 실천은 『보전 vs.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집권한 진보정권 하에서 부엔 비비르는 주로 석유, 기후변화, 체제전환, 원주민, 빈곤, 발전 등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발전에 대한 정의와 그 실천 등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엔 비비르라는 전환 담론의 급진적 실천안으로

탈석유 발전이 제안된 것에 반해, 코리아 정권은 부엔 비비르 담론의 실천을 단계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유 발전을 지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추출주의에 근거한 발전을 실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한적인 탈석유 발전으로서 야수니-ITT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았으나, 이니셔티브의 실패와 그와 동시에 진행된 지속적인 석유 및 광물 자원 개발은 부엔 비비르의 실천을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 다양한 시민 사회 그룹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부엔 비비르 실천 과정의 복잡한 동학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권의 현실 정치적 딜레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코리아 정권의 입장에서 추출주의에 기반한 주류 발전 모델의 전면적인 폐지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선택지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출주의의 지배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정권 하에서 부엔 비비르에 기반한 신헌법이 제정되고 그 실천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그룹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발전 이슈들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에과도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후 위기에의 대응이 대안의 제안, 지속적인 이견과 분쟁, 일시적 협의 등이 상충하는 지난한 과정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일은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맞서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세계적인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그의 개념적 은유이론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추론 방식을 구조화한다”고 설명했다(레이코프 2016, 36). 기후‘위기’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말하고,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며 글을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 김달관·조영현 (2012).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제1호, pp. 21-55.
- 김은중 (2013). “발전 담론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중남미연구』, 제32권, 제2호, pp. 83-110.
- 노리유키 고바야시 (2010). 『지구온난화와 산림』. 도요새.
- 레이코프 조지 (2016).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나익주 역. 생각정원.
- 박선미·김희순 (2015). 『빈곤의 연대기』. 갈라파고스.
- 서라연 (2014). 『라틴아메리카의 형성: 교환과 혼종(하)』. 한울 아카데미.
- 서지현 (2018).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와 신자원개발주의: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37권, 제1호, pp. 37-62.
- _____ (2019). “대안적 환경 거버넌스 형성의 정치생태학: 1970-1980년대 브라질 서부 아마존의 경험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제32권, 제3호, pp. 79-107.
- _____ (2021a). “에콰도르 아마존 빈민의 환경주의와 대안적 발전.” 『인문사회21』, 제12권, 제3호, pp. 2201-2215.
- _____ (2021b).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미 대두 산업의 사례.”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제32권, 제2호, pp. 197-228.
- _____ (2021c). “부엔 비비르, 에콰도르 발전의 전환 담론.” 구도완 외.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생명자유공동체 총서 2). 도서출판 풀씨.
- 이준서 (2020).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pp. 85-128.
- 조영현 (2018). “해방철학과 수막 카우사이 비교연구: 유토피아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제29권, 제1호, pp. 151-188.
- _____ (2019). “부엔 비비르(Buen Vivir) 담론 내부의 이념 노선에 대한 연구.”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32권, 제1호, pp. 27-55.
- 조영현·김달관 (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제31권, 제2호, pp. 127-160.
- 존 헤밍 (2013). 『아마존』. 최과일 역. 미지박스.
- Acosta, A. (2009). “La madición de la abundancia: un riesgo para la democracia.” *La Tendencia* No. 9. Mar/Abr, pp. 103-113.
- Arsel, M. and N. A. Angel (2012). “‘Stating’ Nature’s Role in Ecuadorian Development. Civil Society and the Yasuní-ITT Initiative.” *Journal of*

- Developing Societies*. Vol. 28. No. 2, pp. 203-227.
- Bozigar, M. et al. (2016). "Oil Extraction and Indigenous Livelihoods in the Northern Ecuadorian Amazon." *World Development*. Vol. 78, pp. 125-135.
- Bremner, J. and F. Lu (2006). "Common Property among Indigenous Peoples of the Ecuadorian Amazon." *Conservation & Society*. Vol. 4. No. 4, pp. 499-521.
- Certomà, C. and L. Greyll (2012). "Nonextractive Policies as a Path to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the Yasuni Park in Ecuador." *New Political Spaces in Latin America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edit.) Haarstad, 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99-216.
- Clark, P. (2016). "Neo-developmentalism and a 'Vía campesina' for rural development: Unreconciled projects in Ecuador's Citizen's Revolution." *Journal of Agrarian Change*. Vol. 17, pp. 348-364.
- Escobar, A. (2010). "Latin America at a Crossroads: Alternative modernizations, post-liberalism, or post-development?" *Cultural studies*. Vol. 24. No. 1, pp. 1-65.
- Fierro, L. G. (2016). "Oil or Life: the dilemma inherent in the yasuní-ITT initiative."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No. 3, pp. 939-946.
- Fontaine, G. et al. (2019). "Policy mixes against oil dependence: Resource nationalism, layering and contradictions in Ecuador's energy transi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 47, pp. 56-68.
- Goeury, H. (2021). "Rafael Correa's Decade in Power(2007-2017): Citizens' Revolution, *Sumak Kawsay*, and Neo-Extractivism in Ecuador." *Latin American Perspective*. Vol. 48. No. 3, pp. 206-226.
- Kingsbury, D. et al. (2019). "Populism or Petrostate?: The Afterlives of Ecuador's Yasuní-ITT Initiative." *Society & Natural Resources*. Vol. 32. No. 5, pp. 530-547.
- Noroña, M. B. (2022). "Extractive governmentality, ethnic territories, and racial imaginaries in the northern Amazon of Ecuador." *Geoforum*. Vol. 128, pp. 46-56.
- O'Connell, C. (2015). "Yasuni-ITT and Post-Oil Development: Lessons for Development Educators."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Vol. 22, pp. 35-58.
- Pellegrini, L. et al. (2014). "The demise of a new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olicy? Exploring the tensions of the Yasuní ITT initiative."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Vol. 1, pp. 284-291.

Perreault, T. (2001). "Developing identities: Indigenous mobilization, rural livelihoods, and resources access in Ecuadorian Amazonia." *Ecumene*. Vol. 8. No. 4, pp. 381-413.

Southgate, D. et al. (2009). "Oil Development, Deforestation, and Indigenous Populations in the Ecuadorian Amazon." Paper presented to the LASA in Rio de Janeiro, Brazil. 11-14 June 2009.

Vallejo, M. C. et al. (2015). "Leaving oil underground in Ecuador: The Yasuní-ITT initiative from a multi-criteria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Vol. 109, pp. 175-185.

Vitieri-Salazar, O. and L. Toledo (2020). "The expansion of the agricultural frontier in the northern Amazon region of Ecuador, 2000-2011: Process, Causes, and impact." *Land Use Policy*. Vol. 99, pp. 1-11.

| 논문투고일 : 2022년 11월 16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11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9일 |

| ABSTRACT |

Transition Discourse in the Climate Crisis Era and the Dilemma of Extractivism:

The case of the Amazon in Northern Ecuador

Seo, Ji-hyun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times, the transition discussions that have been actively developing at home and abroad in relation to the climate crisis are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r transi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Ecuador in Latin America, which has been actively pursuing these discussions before our country. Since the 1990s, the Buen Vivir discourse has been formed by indigenous movement as a transition discourse, distancing from the mainstream development model based on extractivism. It has since evolved into an umbrella term in Latin America that encompasses various alternatives to the mainstream model of development. Meanwhile, in Ecuador, the regime of Rafael Correa, which came to power in 2007, drafted a new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cept of Buen Vivir and implemented various alternative policies. This study analyses the Buen Vivir discourse and its practice in Ecuador,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orthern Ecuadorian Amazon. While civil society proposed Post-oil development as a radical practice of the Buen Vivir discourse, the Correa regime faced the dilemma between Post-oil development and extractivism in a phased process of action that took into account the various interests of *realpolitik*. By analysing the dilemmas in Ecuador's transition discourse

and practice,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transi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 Key words: Climate Crisis, Amazon, Buen Vivir, Post-Oil Development, Extractivism